

[종합·해설]

여야 '국감체제' 본격 돌입

참여정부 심판 vs 7개월 실정 질타

한나라 "盧정권 5년 방만 운영 총체적 감사"

민주당 "종부세 완화 저지·중소 대책 주력"

국정감사가 다음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5년의 과오를 파헤치겠다고 버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간의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감을 앞둔 각 당의 전략을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감의 목표를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로 설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이 같은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금융 불안에 따른 파급 ▲중국 멜라민 공포에 따른 먹을

거리 불안 ▲북한의 불안한 내부 사정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치중하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이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며 편가르기식 국정 운영의 병폐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간 거뒀던 '실정'을 남김없이 파헤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수권 정당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

화를 '부자 정책'으로 규정, 총력 저지와 함께 주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통화유연성상품인 키오 사태와 관련한 중소기업 보호, 멜라민 파동의 대책을 주도하는 등 민생·경제 부문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 제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의 공판개입 의혹 등 정권의 소위 '4대 게이트'를 추궁하고,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과 이 대통령 측근인 구본홍씨의 YTN 사장 임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방송장악' 논란을 둘러싼 총공세를 펴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혁과제·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李 대통령, 여야 대표단 만찬...野 "서민경제 안정 감세 대책 세워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 등 여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원내지도부 등과의 만찬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와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발(發) 금융쇼크에 따른 경제위기의 심각성

을 거론, 위기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공안정국 및 언론장악 논란 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이번 만찬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찬회동에서 경제 및 남북문제 등에 대한 상생협력을 다짐한 뒤 처음 열린 것으로, 여야간 생산적 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또 각종 개혁과제 및 민생고 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이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논의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종부세와 공안정국 논란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정해신, 인적쇄신 없이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종부세 안과 재산세 증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부가세 30%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대책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당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협의체 설치, 식품안전대책 강화,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광주시당은 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은 "1% 강부자"를 위해 전국민 세무담을 증가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F1대회 등 지원 국회 '국제경기특위' 시동

정가 브리핑

○ F1국제자동차대회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지원하게 될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이하 '국제경기특위')가 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을 각각 간사로 선출하는 등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국제경기특위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조 의원 외에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참여했고 보성이 고향인 한나라당 정영석 의원이 가세했다.

김 의원은 12일 호남지역을 방문,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와 소재원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15~16일 해안사·우포늪, 20~2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대산유화단지(삼성종합화학), 22~23일 강원도 영월 단종유배지·하회마을·병산서원 등을 각각 1박2일 일정으로 찾은 계획이다.

"방통위 만찬 접대 민주당 의원 사과 하라"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서부터 만찬을 접대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일 '방통위 만찬 접대, 지역민에게 사과해야'라는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피감 기관의 접대를 받은 점은 국회의 원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지영·김지희기자 jkpark@kwangju.co.kr

김형오 국회의장 12일 호남 현장 투어

○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12일부터 고흥 우주센터와 순천만, 소재원 등 생태·미래 전략 지역을 찾아 한국의 발전 동력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땅 생생탐방'이라는 국토현장 투어에 나선다.

정 대표 "연내 평양 방문 희망...북측과 논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필요하다면 평양을 방문, 북측의 정당 대표나 핵심관계자들을 만나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10·4 선언 1주년을 맞아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일 먼저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양 방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논의, 검토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북측과도 논의했다"면서 "연내에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실 까지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그 전에 민주당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북측과의 논의는 9월 초 간접적으로 북측이 민주당과의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인지를 파악하는 차원 정도로 이뤄진 것으로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wanneung Education' (관내영교육학)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교사 임용시험의 합격 파트너 - 관내영교육학' and '10월 실전 모의고사 해설특강 4회'. It lists various subjects like Korean Language, English, and Math,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institute.

Advertisement for 'Mudung Gosihakwon' (무등고시학원) for the 2009 Civil Service Exam (7.9급 공무원). It highlights a high pass rate and offers a '30~40代 주부특별반강좌' (Special course for housewives aged 30-40). Contact info: 222-4560.

Advertisement for 'Gongin Jeung-gae-sa'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for the 18th National Exam. It claims to be the 'strongest instructor' and offers '집합계단기특강' (Group staircase special course) and '최종문제풀이특강' (Final problem-solving special course). Contact info: 361-8111.

Advertisement for 'Je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or the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pecialist' (농산물품질관리사) exam. It offers a 100% job guarantee for qualified candidates. Contact info: 062-236-2468.

Advertisement for 'SCU Han-yi-dae' (SCU한의대) for international students. It promotes the university as a 'UNESCO recognized regular university' and offers '한이대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tudy in Korea!). Contact info: 010-6834-6253.